

배우 이성민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건 제 직업이니깐요”

영화 ‘대외비’서 숨은 실력자 ‘권순태’ 맡아
‘리멤버’ ‘재벌집’ 이어 세 번째 노인 연기
“노인 연기라고 특별한 노하우 있지 않아”
“연기 전성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전히 연기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다”

배우 이성민(55)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알람이 설정된 시간을 보여줬다. 그의 알람 앱은 새벽 3시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분 단위로 꼭 차 있었다. 어떤 날은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해야 해서 새벽 알람을 맞았고, 어떤 날은 밤샘 촬영을 한 뒤 밤부터 다시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오후 늦은 시간에 알람을 맞았다. 그렇게 쌓인 알람이 수십 개였다. “저도 직장인들이랑 똑같아요. 배우라고 다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10월 영화 ‘리멤버’와 드라마 ‘형사록’에 이어 11월부터는 ‘재벌집 막내아들’ 그리고 3월에 개봉하는 ‘대외비’까지. 그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 6개월 간 무려 네 작품이다. 직장인을 언급했던 그는 정말이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사무원처럼 일하며 작품을 뽑아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보니 이성민은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10년대 초부터 쉬지 않고 매년 두 세 작품을 꼬박 내놨다. 영화 ‘대외비’ 개봉을 앞두고 만난 그는 “제가 쉬는 걸 잘 못해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전 연극할 때도 그랬어요. 1년에 6~7편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전 (연기 말고) 딱 게 없어요. 최근에 여권 갱신했는데, 도장이 두 개가, 세 개가 찍혔더라고요. 그 중 하나는 ‘공작’으로 간 칸을 때렸어요.” 이성민이 드라마 ‘미생’에서 위촉출력 회사원 ‘오상식 과장’을 연기한 건 어쩌면 필연적이

일지도 모른다. 최근 이성민은 노인(老人)과 인연이 있다. ‘리멤버’에서도,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대외비’에서도 그는 노인 분장을 하고 나온다. 배우들이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다소 흔하고 실제 나이보다 어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노인을 연달아 맡는 경우는 앞서 어떤 배우도 하지 않은 일이다. 촬영 순서로 보면 ‘리멤버’를 가장 먼저 찍었고, 그 다음이 ‘대외비’ 마지막 ‘재벌집 막내아들’이었다. 이성민은 이미 ‘리멤버’를 하면서 노인 연기를 어느 정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작품들에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외비’에서 이성민이 연기한 ‘권순태’는 장막 뒤에서 정계를 손에 쥐고 흔들는 인물. 배우 조진웅이 연기한 정치인 ‘전해웅’을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그와 대립하게 된다. “깜패인지 정치인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불분명하죠.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게 모호합니다. 제가 모델로 삼은 실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재량껏 연기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세 차례에 걸친 노인 캐릭터 연기에 대한 접근법은 모두 달랐다. ‘리멤버’의 ‘한필주’를 연기할 땐 그가 살아온 삶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양철’을 연기할 때 한국 근현대사의 몇몇 인물들이 겹쳐보이게 연기했다. ‘대외비’에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배우의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갔다. “노인 연기의 노하우 같은 건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연기하는 거죠. 목소리를 많이 굵어서 냈더니 목이 아프긴 합니다.”

지난해 말 대중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드라마는 단연 이성민이 주연한 ‘재벌집 막내아들’이었다. 송중기를 비롯해 출연 배우 대부분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이성민의 연기를 향한 상찬이 쏟아졌다. 대기업을 이끄는 회장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나약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성민은 “가끔 이렇게 잊을 만하면 잘 되는 작품이 있다는 게 살아가는 맛”이라고 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로 지금이 이성민 연기 인생의 정점일까.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정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요. 전 ‘재벌집’이 잘 됐을 때도 ‘이거 한 달 가겠구나’ 생각했어요.”(웃음)

‘재벌집 막내아들’을 두고 전성기에 관해 얘기하던 중에 그는 아직도 연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 같다”는 게 그의 표현이었다. 매 작품 새로운 걸 시작할 땐 이번 만큼은 연기를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였다. 30년 넘게 연기를 했고, 연기력을 인정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쉬운 게 있냐는 물음에 이성민은 “내 연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영화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난 이제 영화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 않냐”라고 답했다. 다시 그에게 “그럼 아직 대표작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요” 묻자 이성민은 이렇게 답했다. “그건 아닙니다. 제 대표작은 당연히 있죠. 그 작품들에 정말 만족하고요. 그 정도 한 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걸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걸 제 직업이니깐요.”



여행도 잘 가지 않고 집과 촬영장만 오가는 이성민이 최근 빠져 있는 게 있다. 골프다. 6년 전에 시작했고, 4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는 골프가 연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연기로는 건강에 해로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골프로는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오늘 된 것 같은 게 다음 번엔 안 되는 게 연기와 골프가 비슷한 지점이에요.”(웃음) 골프는 아주 예민한 운동이어서 연기를 닮았죠. 그래도 잡생각 없어지고, 녹색을 볼 수 있고, 동료 배우들과 술 안 마시고 어울리면서 제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성민은 다시 태어나면 연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대신 그는 뭔가를 고치는

일을 할 거라고 했다. “답이 없는 게 연기잖아요. 반대로 물건 고치는 일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상투적일 수 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배우가 되고 싶다. 진심을 담아서 연기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내 눈이 좋다고 하더라. 영화 ‘헤어질 결심’(2022)을 보면서 진심이 담기면 언어는 수단일 뿐이라고 느꼈다. 내가 ‘싫어’라고 말해도 눈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면 전달이 되더라. 거짓 없이 투명하게 연기하고, 눈빛이 좋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멜로가 체질’처럼 20대 청춘을 응원하는 작품이나 액션물을 하고 싶다. ‘나의 아저씨’처럼 먹먹한데 따뜻한 작품도 좋아한다.”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 멜론서 또 신기록...77일 연속 1위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75회 넘어서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디토(Ditto)’가 국내 음원 시장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멜론에서 또 기록을 세웠다. 7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의 ‘디토’는 전날 멜론 일간 차트에서도 정상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19일 음원이 공개된 이후 77

일 연속 1위다. 이로써 뉴진스의 ‘디토(Ditto)’는 역대 멜론 일간 차트 누적 최다 1위 곡이 됐다. 방탄소년단의 매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75회)를 넘어서 기록이다. 뉴진스는 멜론 주간 차트 신기록 행진도 차

연세 이 이어갔다. ‘디토’는 같은 날 발표된 멜론 주간 차트(2월 27일~3월5일)에서도 정상을 오르며 11주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 역시 2004년 멜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최장 기간이다.

‘다이너마이트’도 총 11주간 1위다. 그런데 2020년 8월 24~30일 차트부터 시작해 7주간 1위를 하다가 2주간 정상을 내준 뒤 다시 4주 1위를 해 연속은 아니다.

뉴진스는 멜론뿐 아닌 지니와 벅스 차트 1~3위를 7주째 장악하고 있다. 3사 모두 1위는 ‘디토’다. 멜론과 벅스에서는 ‘OMG’와 ‘하이프 보이(Hype boy)’, 지니에서는 ‘하이프 보이’와 ‘OMG’가 순서를 바꿔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하이프 보이’ 외 뉴진스의 또 다른 데뷔곡 ‘어텐션(Attention)’이 지니에서 6위, 멜론과 벅스에서 7위에 랭크됐다.

발매된 지 7개월이 넘은 데뷔곡 두 곡이 신곡과 함께 여전히 ‘톱 10’에 머물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뉴진스는 대중성뿐만 아니라 음악성도 인정 받았다. 지난 5일 열린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 ‘최우수 케이팝 음반’, ‘최우수 케이팝 노래’ 3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업적 인기보다 음악적 성취에 초점을 둔 이 시상식에서 뉴진스는 “단순한 걸그룹 세대교체를 넘어 K-팝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호평을 들었다.

설민석·한가인 재회...‘신들의 사생활2’



역사강사 설민석의 ‘신들의 사생활’이 시즌2로 돌아온다.

MBN 예능물 ‘신들의 사생활2-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음 달 초 첫 선을 보인다. 설민석과 탤런트 한가인, 김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시즌1에 이어 함께 한다. 미술사 강사 이창용이 새 패널로 합류한다. 바티칸,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에서 10년 여간 도슨트(전시해설사)를 해온 만큼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신들의 사생활은 설민석의 역사 애국·논문 표절 논란 2년만 방송 복귀작으로 주목 받았다. 설민석은 지난해 11월 시즌1 종방 후 3개월 넘게 시즌2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작진은 “시즌1에서 ‘신들의 왕’ 제우스가 어떻게 올림포스 왕좌에 오르게 됐는지를 메인 이야기로 들려줬다”며 “시즌2에선 신화판 인피니티 워인 기간토마키아와 엔드게임 격인 튀폰과의 전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화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킹덤, 미니 6집 ‘벚꽃의 왕국’ 콘셉트 포토 공개

그룹 킹덤(KINGDOM)이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7일 자정 킹덤은 공식 SNS를 통해 여섯 번째 미니앨범 ‘히스토리 오브 킹덤 : 파트 6. 무진’의 첫 번째 단체 콘셉트 포토를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무진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멤버들은 ‘벚꽃 왕국’ 의상을 입고 분위기를 발산한다.

앨범명과 콘셉트 포토에서 알 수 있듯이 앨범 주인공은 멤버 무진이다. 무진은 쿠타에 뱀문양의 피어싱을 한 채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원, 자한, 단, 아서, 무진, 루이, 아이반으로 구성된 킹덤은 왕의 이름을 뜻하는 7인의 멤버 자체가 그룹의 세계관이다. 미니 1집 ‘비의 왕국’ 아서를 시작으로, 미니 2집 ‘구름의 왕국’



치우, 미니 3집 ‘눈의 왕국’ 아이반, 미니 4집 ‘변화의 왕국’ 단, 미니 5집 ‘미의 왕국’ 루이가 지 서사를 전개하며 특별한 세계관을 선보이고 있다. 킹덤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히스토리 오브 킹덤 : 파트 6. 무진’은 23일 오후 6시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티오원, 디지털 싱글 ‘허그’ 사운드 포토 X커버 공개

내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 통해 발매

그룹 티오원(TO1)이 디지털 싱글의 사운드 포토와 음원커버를 공개했다.

7일 0시 티오원은 공식 SNS를 통해 디지털 싱글 ‘허그(Hug)’의 첫 번째 단체 사운드 포토와 음원 커버를 차례로 게재했다.

‘허그’는 2004년 발매된 동방신기(TVXQ)의 데뷔 싱글 ‘허그’의 타이틀곡이다.

공개된 사운드 포토 속 멤버들은 올 화이트 스타일링으로 비주얼을 드러냈다. 순백의 모습 속 살짝 썩 꽃 한 송이가 눈길을 끈다.

함께 공개된 음원 커버에서는 티오원 만의 키치한 매력과 원곡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우유, 고양이 등의 아이템이 곳곳에 숨겨져 보는 재미를 더했다.



티오원의 디지털 싱글 ‘허그’는 9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